

# 도쿄 임시 거처



지금 생각하자. 지진 후의 삶을 지키기 위해.

도쿄도

2022년 3월

본 인쇄물 사용 방법

### I

가족과 거처에 관한 정보를 기입한다.

### II

순서도와 해설 (뒷면)을 확인한다.

### III

시뮬레이션이라 생각하고 재해 시의 피난처, 임시 거처, 체크 목록을 작성하자.

## I. 가족과 거처에 관한 정보

가족에 관해  
동거 중인 가족 ( ) 명  
재해 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유무(해당할 경우 ✓)  
고령자 장애자 영유아 외국인 기타

거처에 관해

소유 (자가, 임대)	건축년수 (서기)	구조 (목조, 철골조 등)	형태 (단독 주택, 아파트 등)	내부 구조 (1R, 2LDK 등)
	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재해 사망자의 약 80%가 건물 붕괴로 인한 압사입니다. 1981년 5월 이전에 건축 확인된 건물은 '구 내진'이라 하여, 대지진에서의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위험도에 관해

지역명	건물 붕괴 위험도 순위	화재 위험도 순위	화재 시 활동 곤란도 순위	종합 위험도 순위

도쿄도에서는 지역별로 각종 위험도 순위 (위험도가 낮은 1부터 위험도가 높은 5까지 다섯 순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위험도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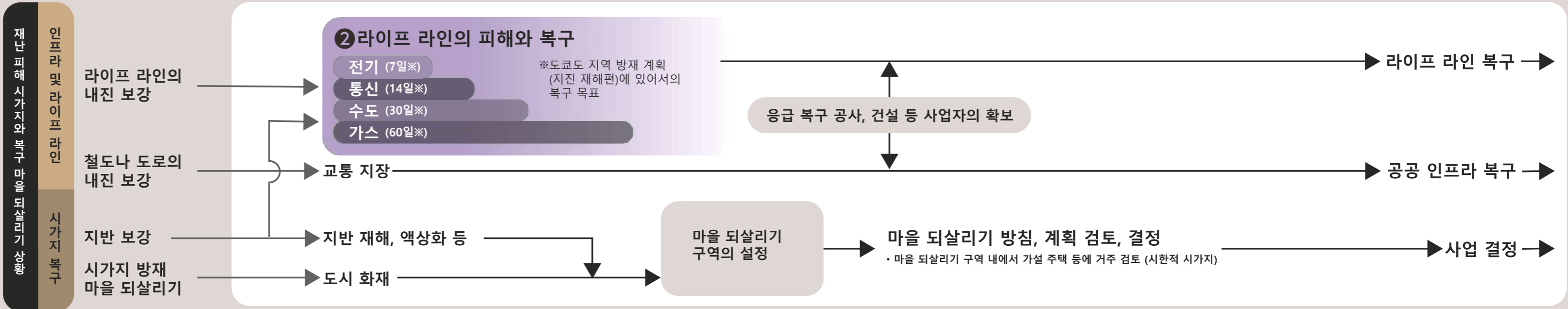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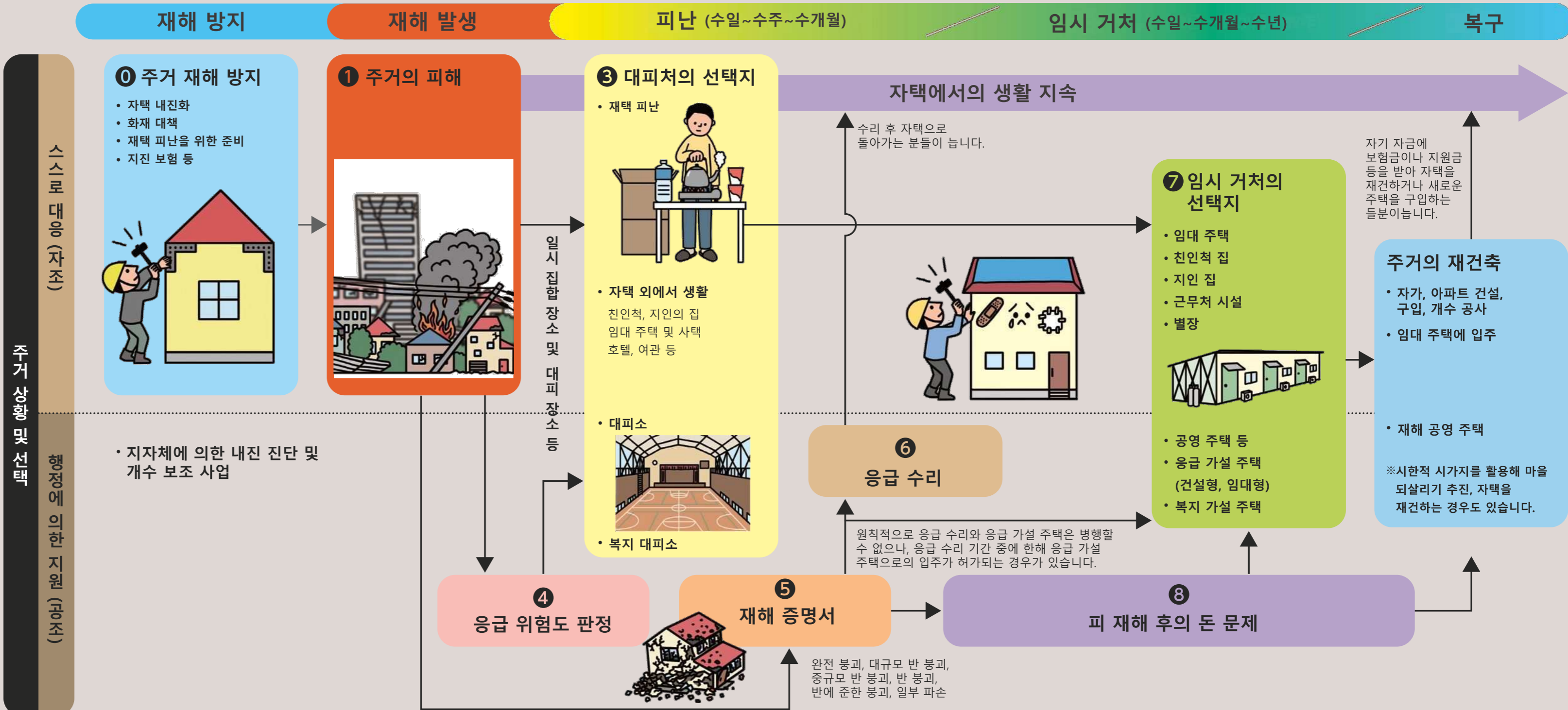
재해 보험에 관해

가입 유무(해당할 경우 ✓) 화재 보험 지진 보험

화재 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나 화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 보험은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으며 화재 보험과 세트에 계약합니다.

## II. 도쿄 임시 거처 순서도

● 각 항목 번호에 대한 해설은 뒷면을 참고하십시오.



## III. 재해시 피난처, 임시 거처

만일, 자택이 큰 재해를 당해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를 예상해 보십시오.

피난처를 이미지한다.	임시 거처를 이미지한다.
예) 친인척 집, 임대 주택, 사택, 피난소, 복지 피난소 등	예) 수리에 자택에 거주, 부모님 댁, 친인척 집, 임대 주택, 응급 가설 주택 (건설형) (임대형), 공영 주택 등
희망하는 순서	희망하는 순서
1	1
2	2
3	3

## 방재, 임시 거처 체크 목록

◎: 완벽 ○: 관촬음 △: 불만 ×: 불충분을 □ 안에 기입해 주십시오.

내진 진단, 보강	방재 훈련에 참가 (소방 훈련 등)	
가구 쓰러짐 방지	지역과의 연결 (자치회나 수리업자 등)	
유리 깨짐 방지 필름	친인척, 지인과의 연결	
주택용 소화기, 주택용 화재 경보기	광역 임시 거처 준비 (피난 후보지 사전 방문)	
지진 감지 차단기, 손전등 등	지식 갖추기 (행정 지원 등)	



자택 피난이나 피난소에서의 생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쿄 방재' '도쿄 생활 방재'를 확인하십시오.



▲ 도쿄 방재



▲ 도쿄 생활 방재

대지진이 일어나 만일 지금 사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 당장 임시 거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자택이 재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임시 거처는 필요 없습니다. 주거의 방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0 주거 재해 방지

## ■ 자택 내진화



주거의 방재 대책을 마련하면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가 적어 자택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진 진단, 내진 보강 조성 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에 확인해 봅시다!

## ■ 화재 대책



도쿄도에서는 지진 발생 시 큰 화재로 변질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준비하고 전기 화재 대책 (브레이크 차단)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소방 훈련에 참가합시다!

## ■ 재택 피난을 위한 준비



물, 식재료, 간식 화장실 등의 비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비상약이나 영유아를 위한 분유, 우유 등 개인에 맞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고층 아파트인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면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므로 넉넉하게 비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지진 보험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화재 보험이나 지진 보험을 재검토합시다.

분양 아파트인 경우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의 지진 보험 (관리 조합 가입)도 잊지 마십시오.

# 3 대피처의 선택지

<자택에서 생활 계속>



자택에서의 생활이 계속 가능한 상태라면 피난소에 가지 않고 자택에 머무는 '자택 피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택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경우, 여진이나 다음 지진의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건물 등의 안전성을 확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택 외에서의 생활>



자택에서의 생활이 위험할 경우,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의 집, 민간 임대 주택이나 호텔, 회사의 사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피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적당한 피난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먼 장소로의 '광역 피난'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피난소>



자택에서의 생활이 위험할 경우, 초중학교 체육관 등의 피난소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 주택 등에 일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많은 모르는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일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분은 피난소 운영에 협력합니다.

<복지 피난소>



장애가 있는 분에게는 피난소에서 지낼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복지 사업자 등이 일반 피난소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한 복지 피난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6 응급 수리



주택 응급 수리 제도란 재해로 인해 반 붕괴 반 연소 등의 피해를 입어 응급적으로 수리하면 주거가 가능하나 자신의 경제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규모 반 붕괴, 중규모 반 붕괴, 반 붕괴 피해의 경우는 약 60만 엔, 준 반 붕괴 피해의 경우는 30만 엔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의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쿠마모토 지진에서는 분양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응급 수리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응급 수리와 응급 가설 주택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응급 수리 기간 중에 한해 응급 가설 주택으로의 입주가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독 주택, 아파트 등 모든 자가 주택이 대상입니다.

# 7 임시 거처의 선택지

도쿄 남부 바로 아래 지진 (M7.3, 겨울 저녁, 풍속 8M초) 건물 피해 예상 동수 (완전 붕괴, 반 붕괴, 완전 연소)

약 40만 동

수도 직하 지진 등에 의한 도쿄 피해 예상 (2022년 5월 : 도쿄도 방재 회의)

응급 가설 주택 20~30% 정도

스스로 거처를 확보 70~80% 정도

과거의 지진 화재 시, 완전 붕괴, 반 붕괴 가구 수의 20~30% 세대의 응급 가설 주택이 제공되었습니다. 나머지 70~80% 세대는 스스로 거처를 확보한 것이 됩니다.

<행정에 의한 지원>

주택이 재해 피해를 입어 스스로의 자본으로는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입주 가능한 가설 주택이 제공됩니다.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최장 2년간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기존 임대 주택을 행정이 빌려 무상으로 입주 가능한 가설 주택이 제공됩니다.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최장 2년간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건설형 응급 주택을 지을 토지에 한계가 있고 임대용 빈집이 많으므로 임대형 응급 주택으로의 대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립식 가설 주택



목조 가설 주택



임대형 응급 주택

<스스로 확보>

지역으로 임대 주택을 임대



친인척, 지인의 집

행정에 의한 가설 주택이 외의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스스로 임대 주택을 빌릴 여유가 있는 분은 스스로 임대 주택을 구매 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인척이나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피해처 외부로 나가는 '광역 임시 거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역 임시 거처>



# 1 주거의 피해

1981년 6월 이후에 건축된 신 내진 기준의 주택이라도 지진 6, 7로 강하게 흔들리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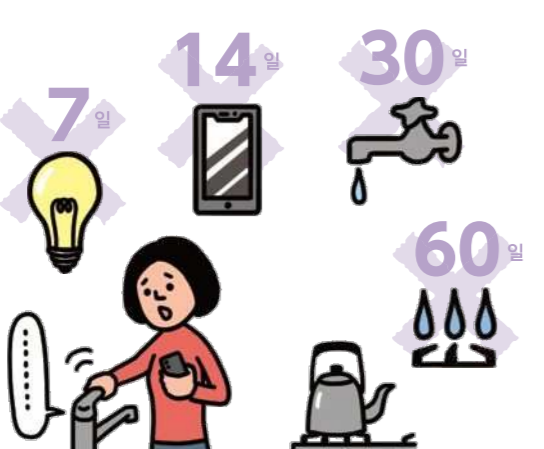


# 2 라이프 라인의 피해와 복구

도쿄도 지역 방재 계획 (지진 재해편)에 기재된 복구 목표는 전력 7일, 통신 14일, 상하수도 30일, 가스 60일입니다.

\* 각 라이프 라인의 기능을 95% 이상 회복시키기 위한 목표 일수

자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라도 라이프 라인의 지장이 있는 가운데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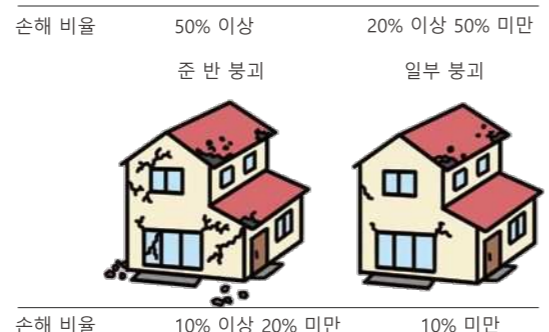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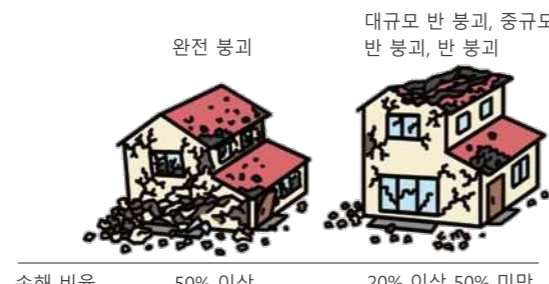
# 4 응급 위험도 판정

응급 위험도 판정이란 재해 피해를 입은 건물을 조사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여진에 의한 붕괴의 위험성이나 외부, 장문 낙하, 부속 설비의 무너짐 등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험'이나 '요주의'의 경우, 일단 자택 외의 장소로 피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재해 증명서



재해 증명서란 재해 피해를 입은 가족의 피해 정도를 지자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주거 피해 인정 조사를 실시해 재해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재해 증명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적용의 판단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④ 응급 위험도 판정과 ⑤ 재해 증명서의 피해 인정 조사는 다른 조사입니다. 응급 위험도 판정에서 '위험'이라고 판정받았다고 해서 재해 증명서에서 '완전 붕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나 복구 일 등의 전에 피해 상황의 사진을 찍는 등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 둡시다.

\* 피해 정도는 이미지입니다. \* 아파트도 대상입니다.

# 8 피 재해 후의 돈 문제

주거자가 재해 피해를 본 후의 돈 문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금]** 대규모 재해로 살던 집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00만 엔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 증명서를 받은면 지원금에 대한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재해 위로금]** 대규모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의 가족에게는 최대 500만 엔의 재해 위로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창구에 신청해 주십시오.

**[자연 재해 채무 정리 가이드 라인]** 재해 구조법 적용을 받은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이재민이 주택 대출금 등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채무를 줄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금융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내각부 홈페이지 '이재민에 대한 지원 제도' (<http://www.bousai.go.jp/taisaku/hisaisiyagousei/seido.html>)

# 방재, 임시 거처 워크숍에서의 의견

센슈 대학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도내 6곳에서 재해 후의 임시 거처에 대해 생각해 보는 도민 워크숍을 개최해, 다양한 세대의 분들, 기업에 근무하는 분, 육아 중인 분, 장애가 있는 분 등이 참가했습니다.

재해 피해 직후만 생각했습니다. 피난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리 생각하기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대화가 가능한 가설 주택을 희망합니다.



부모님 댁으로의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를 위해 많은 피난 및 임시 거처의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해 근무가 가능하면 지방으로의 광역적인 피난이나 임시 거처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질 것 같아요.

칼럼

## 광역 임시 거처에 대해

방재, 임시 거처 워크숍에서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광역 피난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가까운 현 등과 협정을 체결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서로 다른 도나 현에 임대형 응급 주택 제공에 대해 협력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서는 도민이나 단체가 협동 단결해서 추진하는 '지역 협동 복구'를 제안하고, 주민이 지역의 복구를 추진해 가기 위한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주택, 산업, 생활 각각의 복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해 후 혼란한 상황에서 광역적인 임시 거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하철 주변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 지역 복구를 위해

방재, 임시 거처 워크숍에서는 "모르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불안하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생활을 재건해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 매뉴얼 (복구 프로세스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메뉴얼에서는 도민이나 단체가 협동 단결해서 추진하는 '지역 협동 복구'를 제안하고, 주민이 지역의 복구를 추진해 가기 위한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주택, 산업, 생활 각각의 복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bousai.metro.tokyo.lg.jp/bousai/1000031/1003362.html>

## 분양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지진 재해로 많은 아파트가 피해를 입어 수리나 재건축 등 합인 형성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방재 조직 및 훈련, 공용 부분의 지진 보험이나 주민 리스트를 정비, 재검토해, 재해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두도록 합시다.

## 약덕업자나 사기에 관해

재해 시 고액의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약덕 수리업자나 지원금 지급을 가장해 계좌 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 내려는 사기 그룹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혼자 결정내리지 말고 가까운 소비 생활 센터 (소비자 핫라인 188)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걸면으로 돌아가, Ⅲ 재해 시의 피난처, 임시 거처, 체크 목록을 기입해 주십시오.**

2022년 3월 발행 편집, 발행 / 도쿄도 주택 정책 일부 주택 기획부 기획 경리과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전화 03-5320-5057 인쇄 주식회사 파인 워크스 \* 본 인쇄물은 대학 연구자에 의한 제안 사업으로 센슈 대학과 함께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게재된 정보는 2022년 3월 현재의 것입니다.